

문화광장



박태수 제주국제영상센터 이사장

행복에너지를 가꾸며 살아가기

삶에서 흔히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들이 있다. 이른 아침 동녘에 떠오르는 둥근 태양, 식사할 때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주는 정자나무, 심지어 밥맛을 돋우는 것 따운 고추들이다. 이런 것들을 만나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른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변화시켜 외면의 모습을 밝게 해준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모습을 바꾼 한 사례를 보자. 귀신과 요괴의 상을 조각하는 한 조각가가 있었다. 오랫동안 귀신과 요괴를 조각하다보니 그 조각가의 얼굴은 점차 요괴처럼 추악하게 변해갔다. 사람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추악해졌다고 했다. 병원을 찾아 그 원인을 물었으나 알 수 없었다. 한 대사가 확신을 갖고 말했다. "당신의 모습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귀신과 요괴의 조각 대신 100개의 불상을 조각하세요"라고 일러줬다. 그는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신 조각상과 비슷했던 얼굴이 차츰 불상과 비슷해졌고, 사람들이 차츰 그의 모습을 보고 더 좋은 인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드디어 조각가의 얼굴은 밝게 변했다. 이 사례는 조각가의 의식이 귀신이라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모습을 조각하는 동안 귀신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던 요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자애로운 불상의 모습을 조각하

면서 밝고 평화로운 이미지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 사례가 말해주듯 우리의 모습은 밝음과 어두움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의식이 달라지고 그 의식은 외형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즐겨 인용하는 나다니엘 호오돈의 '큰바위 얼굴'에는 에네스트라는 한 소년의 성장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소년은 매일 앞산에 있는 할아버지 모습의 인자한 바위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자라나는 소년들은 누구나 저 큰 바위얼굴처럼 인자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모습의 성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소년도 어느덧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지나 노년에 들어섰다. 이 마을에서 자라서 성공했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분과 큰 바위얼굴을 같이 바라보고는 실망했다. 어느 날

석양 무렵 노인은 마침 찾아온 시인과 담소를 나눴다. 그 시인은 이 노인과 큰 바위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여기 큰 바위얼굴이 있다"라고 감격에 차 외쳤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그 노인과 큰 바위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맞아! 큰 바위얼굴이야" 하고 소리쳤다. 마침내 이 소년은 큰 바위얼굴을 보고 자라면서 큰 바위얼굴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외적인 모습은 내적 의식에 따라 변한다. 내적 의식은 본질적인 것이며 영적인 힘이 있다. 영적인 힘은 그것이 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영적인 힘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준다. 코로나로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우리 모두 행복에너지를 가꾸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인생스토리 영상 제작



김수정 제주시 아라동 맞춤형복지팀장

영상 콘텐츠가 확정되면 사례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의 강점과 역량을 현장 스케치해 서비스과정, 상담, 연계기록 등을 이야기체로 작성한 후 대상자들과 공유한다.

동영상 제작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재능기부 활동으로 진행되며 제작된 동영상은 아라동 맞춤형복지팀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제작이 완성되면 가족·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공들을 초대해 파란만장한 사연을 나누고 서로 인생 주치의가 돼 따뜻한 위로와 희망 메시지를 힐링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가구 중에 문화관련 경력대회 입상자의 공연으로 전문재능 나눔 활동도 병행추진 한다.

인생 스토리 영상을 통해 대상자들은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삶에 활력을 되찾고, 공공에서는 소통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는하는 통합사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2주간 과도기 거쳐 제한 완화 단계로"

원 지사, 세밀한 방역지침 주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60% 달성을 당부하는 한편, 내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와 관련해 세밀한 방역지침과 관리방안 수립 등을 주문.

원 지사는 "상향 조정된 목표 집행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서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등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

아울러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2주간의 과도기를 거쳐 제한을 완화하는 단계로 나가려고 한다"며 "조정 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해 제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강대해기자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이달 말로 운영을 종료하는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의 주요 성과를 담은 백서가 발간.

제주도교육청은 28일 "교육자치추진단은 지난 2019년 2월 출범해 2년 5개월 동안 운영됐다"면서 "제주

교육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전담을 위한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에 매진해왔다"고 강조. 백서에는 제주특별별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추진 방안 마련, 학교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이 소개. 오은지기자

SNS 마케팅 컨설팅 지원

○...서귀포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음식점 40곳을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맞춤형 SNS 마케팅 컨설팅을 실시. 시는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SNS 계정 개설은 물론 음식 메뉴 촬영 기법을 교육해 모니터링하고, 입주 단독으로 SNS를 통한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 관계자는 "SNS 마케팅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휴대전화와 이용해 음식점을 홍보하는 저비용 및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곧바로 피드백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백귀탁기자

사설

거리두기 완화됐으나 방심하면 안된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부터 다소 완화된다. 현재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이 6명까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하순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지 반년 만에 풀리는 셈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긴장감을 늦추선 안된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별 적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바로 7월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제주도는 정부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모임 가능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타지역보다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 것이다.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제주도는 2주간의 이행기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끊이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감염추세를 보면 관광 목적으로 입도한 여행객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름 휴가시즌에 관광객이 대거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약 30%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제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히 해선 안된다.

남시객 안전 '비상'... 휴가철 철저 대비를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피서객·남시객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코로나19 확산 방역에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 지역사회 큰 화두다. 행정안전부 해수욕장 관광지 등 특정장소에 몰리는 피서객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에 분주한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더해 며칠 새 연이은 남시배 안전사고와 승선원 초과 사례도 한순간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 때문에 남시객 안전에 비상이다.

최근 한 어선이 출항 인원을 1명만 신고하고, 실제로 6명을 승선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작은 어선이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워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 26일 오후 6시16분쯤 추자면 부근에선 남시객 등 12명을 태운 어선이 좌초돼 해경에 모두 구조되고, 어선은 침몰했다. 일련의 어선사고나 안전 불감증은 우연이 아니라 3건 모두 대형 인명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제주바다가 갈치잡이철이라 해도 위험을 무릅쓴 방심 조업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된다. 해경은 휴가철 남시객 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에 나서야 한다. 이미 다음달 10일부터 남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취약시간대 해상유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한 만큼 남시어선에 대해 별도로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봉석(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옵기 어려운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1년 6월 29일
아들 김윤천, 김해정, 윤철, 고경희, 윤복, 김현숙, 딸 김순애, 사위 김홍범, 금애, 정성홍, 애숙, 한상숙, 애자, 허종민, 애연, 오성연

상속한정승인공고
\*성명: 방 김성우 (1969년 05월 05일 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부두로5번길 5, 2층 1호(서귀동, 시민아파트)
상속자는 2021년 6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1년 6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10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권자와 수증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서귀포시 서귀포시 부두로5번길 5, 2층 1호 (서귀동, 시민아파트)
2021년 6월 29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재원, 김재진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법성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을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 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 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법성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사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 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6767-4546,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립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